

04 2026 vol.624

만남



교회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충추는 교회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

5대 본질



4월 목회력

- 03 금 ·성금요일, 구역모임의 날
- 04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5 주일 ·부활주일, 찬양예배 성찬, 부활주일 음악예배
- 12 주일 ·제직회
- 12 주일 ~ 18 토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 15 수 ~ 17 금 ·산상기도회
- 18 토 ·한경직 목사 추도예배
- 19 주일 ·3040연합 찬양예배
- 24 금 ·심방준비회
- 26 주일 ·장애인주일, 사회봉사주일,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CONTENTS



04

이달의 말씀

- 02 또각또각 한 걸음씩, 멈춤 없이 _ 김운성

특집 I 부활절

- 04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_ 남정열
- 06 부활의 밤을 열다 _ 노원일

특집 II 2026년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 08 2026년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 일정 안내
- 09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섬김
- 10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_ 이은빛
- 12 세계로 펼쳐지는 '한경직 토크보기' 국제화 _ 정준희
- 14 한경직 목사와 빌리 그레함 목사 _ 한진유

만남 그리고 사람들

- 17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_ 차인태
- 20 고난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자리 _ 최민혁



26

특별기고

22 영화 <신의악단>을 보고 _ 정하민

다음세대 / 청년광장

- 24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여행 _ 양은결
- 26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중등부 수련회 _ 배리아
- 28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 _ 김태현
- 30 서로의 삶을 돌보는 '주는나무' _ 김선용
- 32 입시의 광야에서 만난 따뜻한 동행 _ 최윤찬
- 34 주님과 함께 걷는 20대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여정 _ 안태환

영락 글로벌

36 네팔에서 어년떠쿠시와 넘치는 사랑 _ 윤희정

땅끝까지 이르러

- 40 2026년 영락 기독교사대회 _ 이찬희
- 42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_ 전도부
- 44 육군사관학교 감사예배 _ 선교부

36

영락의 울타리

- 45 영락시어터 4월 상영 영화 _ 문화선교
- 46 결국은 여호와 이레 _ 김혜민
- 48 가정축복 특별 금요기도회 _ 최한나
- 50 두려움 너머, 말기신 자리로 _ 신성희
- 52 함께기도회, 하나님과 다시 마주하는 자리 _ 강희주

교회소식

- 54 산상기도회 안내 외
- 60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심> _ 이은혜
- 61 새아가 새가정

또각또각 한 걸음씩, 멈춤 없이

김운성 담임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7~58)

2016년 영화 <부활>을 보신 줄로 압니다. 한 장교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봉인하고 지켰지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집니다. 총독 빌라도는 화가 나서 호민관 클라비우스에게 시신을 훔쳐 간 자들을 잡아들이고, 시신을 찾아오라고 엄명합니다. 클라비우스는 탐문 수사에 돌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을 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

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늙고 약해지다가 죽는 것을 슬퍼합니다. 당연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현재의 몸이 죽는 것은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현재의 몸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가죽부대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실 새 생명은 새 몸에 담아야 합니다. 새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인 몸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몸에 담아야 합니다. 이때 영원한 생명을 담을 영원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몸은 신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습니

다. 부활의 몸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등과 분쟁이 심한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많은 오해를 받으며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시달렸습니다. 주일 늦은 밤 파김치가 되어 사택에 들어옵니다. 사모님이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꼭 쉬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찢고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서재로 가서 성경을 펼칩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사모님이 다시 한번 “꼭 쉬고 내일 하세요.”라고 권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진하게 임한다오. 난 이 은혜를 다음 주일 성도들에게 전해 드리고 싶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눈물로, 주님의 위로가 가장 진하게 다가올 때의 그 감동을 다음 주일에 전하기 위해 설교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지만, 목사님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설교 준비를 멈추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꿈틀거립니다. 그 소망은 교회의 갈등과 분쟁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 주일 아침 6시 조금 넘어 교회에 도착합니다. 5부예배까지 설교할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마다 은혜로 채우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실로 향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아직 아침 날씨가 추울 때인데, 교회 마당에 도착하여 준비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또각또각 소리가 들

부활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닌 역사적 사실
흔들림 없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주님을 따라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인데,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지팡이 끝 쇠붙이가 봉사관 앞뜰에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 귀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늙고 허리도 굽으셨습니다. 날씨도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규칙적인 그 발걸음처럼, 주님 집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앞으로 더 늙고 쇠약해져도,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 예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향하던 그분의 발걸음은 곧장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날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원형경기장을 향해 걸었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으며,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선배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흔들림 없이, 굴하지 않고,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발걸음마다 느껴질 것입니다. **만남**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봄의 역설

교회의 창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어느덧 생명의 온기가 움트는 부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다루는 IT미디어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데이터는 '0' 아니면 '1'로 결정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0'의 상태가 확실해야만, 부활이라는 '1'의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기 전, 우리 삶에서 마주해야 할 '가장 확실한 죽음'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농사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예쁘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어둡고 축축한 땅속으로 들어가 '형체도 없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이 자기 모양을 그

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땅속에서 썩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멀쩡할지 모르나, 그 씨앗은 영원히 썩어질 뿐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썩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어야만 딱딱한 껍질을 뚫고 푸른 싹이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 나의 의, 나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확실한 죽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많은 성도님이 부활은 원하지만, 죽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남정열 목사
강북·도봉교구
IT미디어부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것은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전에,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죽는 것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겨울’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십니다. 재정의 위기, 육체의 질병, 관계의 아픔은 우리를 죽이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의 가짜 생명을 죽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시키려는 하나님의 수술대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인물, 베드로

부활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아는 누구보다 강했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는 여중 앞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의 밤은 베드로의 ‘자아가 죽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믿었던 그의 교만과 의지가 완전히 파쇄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죽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더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베드로는 비로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부활 인식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자료를 통해 현재의 주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활절은 점차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통계 시장조사기관 Statista와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을 파악하는 세계 최대 소매업 단체인 NRF(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서구권 소비자의 약 80% 이상이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그 목적은 ‘가족 식사’나 ‘초콜릿·사탕 구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일반 대중에게 부활절은 ‘삶은 달걀을 나누는 날’ 혹은 ‘백화점의 시즌 세일 기간’ 정도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영적 의미보다는 문화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달걀을 주고받는 날도 아닙니다. 부활절은 ‘나의 죽음이 확인되는 날’이며, 동시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잊어갈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며, 내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누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가 모두 주님과 함께 확실히 죽고 주님과 함께 찬란하게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How Great Thou Art’ 부활의 밤을 열다



노원일 집사
강남교구
제3남선교회 부회장
할렐루야찬양대 지휘

진한 여운을 남길 세 번째 부활의 선율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을 노래하는 2026년 부활주일, 할렐루야찬양대는 131명의 대원이 부활절 음악회 ‘How Great Thou Art’(주 하나님 크시도다)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은 예전(禮典)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이고 성탄주일보다 더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준비한 이번 부활절 음악회는 할렐루야찬양대 창단 이래 세 번째 올려드리는 음악회입니다. 지난 두 번의 절기 음악회는 모차르트(W.A. Mozart)와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작품으로 찬양을 올려 드렸고, 이번 부활절 음악회는 현 시대 작곡가의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의 멜로디를 다수 포함하는 음악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마음 깊은 곳에 진하게 여운이 남을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음악으로 묵상하는 부활의 깊은 감동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찬송가를 교회음악 작곡가 데이빗 클라이드스데일(D.T. Clydesdale)이 웅장하고 섬세하게 편곡한 이번 작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부활의 영광을 음악으로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비아 돌로로사, 부활과 승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패션-부활’의 스토리

인을 따라가며 장면마다 다른 음악 양식을 사용하는데, 바흐(J.S. Bach)의 수난곡이 과거의 작품이었다면, 이 곡은 현대적 수난곡이라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인간 예수, 예수님의 고통과 버림받음, 인간적인 고뇌를 부각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며, 과거의 코랄 느낌으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주제 선율을 약장 중간마다 반복해 각 장면의 전환을 정돈하고, 내레이션과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예술적 퍼포먼스... 오감을 깨우는 찬양

특히 이번 음악회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부 문화선교파트 위트니스 뮤지컬팀과 협업하여, 곡 중간에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안무를 함께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또한 음악회로는 처음으로 조명을 활용하는 시각적 요소를 더합니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 위에 표현되는 예술적 퍼포먼스를 선보여,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느낌으로 관중의 마음에 부활의 감동을 한층 더 깊이 새겨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노래와 춤으로 살아 숨 쉬는 특별한 봄 저녁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남**

부활절 음악회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크시도다

David T. Clydesdale



노원일
지휘



박미라
오르간

합창 할렐루야찬양대 | 협연 호산나오케스트라
퍼포먼스 위트니스 뮤지컬팀

2026. 4. 5. SUN 6:00PM

영락교회 베다니홀

2026. 4. 8. WED 7:00PM

육사관학교 육사교회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 주관 영락교회 할렐루야찬양대 | 협력 영락교회 선교부

2026년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 일정 안내



- ▷ 기념예배 : 4월 12일(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 본당
- ▷ 월드비전 한경직상 수상자 초청행사 : 4월 12일(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 본당
- ▷ 추도예배 : 4월 18일(토) 오전 11시, 영락교회공원묘원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목사님의 신앙과 헌신을 기념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2026년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념주간에는 기념예배와 추도예배, 그리고 제2회 월드비전 한경직상 수상자 초청행사를 마련하여 목사님의 신앙 유산과 사랑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기념예배와 월드비전 한경직상 수상자 초청행사는 4월 12일(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이날 예배에는 월드비전 한경직상 수상자로 선정된 세프리아누스 목사(인도네시아)를 설교자로 초청하여,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사역 정신을 오늘날 해외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계승·실천하고 있는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국내외 교회와 기독교사역 네트워크를 더욱 굳건히 하며, 그 정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해서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자의 사역을 통해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 추도예배는 4월 18일(토) 오전 11시 영락교회 공원묘원에서 드려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삶을 감사와 기도로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 오늘의 교회와 다음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섬김, 오늘의 현장에서 이어지다

동티모르의 오지, '희망의 공동체'로 바꾸다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삶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월드비전 환경직상' 제2회 시상식이 2025년 11월 9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다.

월드비전 환경직상은 한경직 목사의 '사랑과 겸손의 섬김' 정신을 계승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었다. 2025년 제2회 수상자로는 동티모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섬김의 사역을 이어온 세프리아누스(Seprianus Yohanis Adonis) 목사가 선정되었다.

동티모르에서 피어난 섬김의 열매, 세프리아누스 목사 수상

세프리아누스 목사는 동티모르(티모르섬) 지역 교단인 GMT 소속 목회자로, 현재 아마누반 중앙북부 노회



'월드비전 환경직상' 수상자
세프리아누스 목사



수상자와 월드비전 국제총재

의장으로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있다. 그는 10여 년 전, 도로와 전기, 식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지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가 사역한 지역은 극심한 빈곤과 교육 기회의 부족, 여성과 아동의 사회적 취약성이 일상화된 곳이었다. 세프리아누스 목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구호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사역을 이어왔다.

세프리아누스 목사의 사역은 월드비전의 인도네시아 파트너 기관인 WVI(Wahana Visi Indonesia)와 협력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수상자 세프리아누스 목사 주요 사역〉

- **아동 권리 증진** : 아동 포럼 23개 조직 운영 및 아동 리더십 함양
- **여성 자립 지원** : 여성학교(Skol Bife) 25곳 운영을 통해 여성과 소녀들의 자립 도모
- **경제적 자립** :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기업 및 생계 그룹 20개 설립
- **교회의 변화** : 인근 42개 교회가 '아동·여성 친화적 교회'로 전환

특히 세프리아누스 목사 부부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돌봄을 실천해 지역사회 내 깊은 신뢰를 쌓았다.

월드비전 환경직상선정위원회는 세프리아누스 목사의 사역이 교회와 국제구호기관의 건강한 협력 모델을 보여 주었으며, 아동과 가족 중심의 전인적 섬김과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동체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경직 목사의 '사랑과 겸손의 섬김'을 오늘의 현장에서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세프리아누스 목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존중받는 협력 관계가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 보여 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만남**

환경직의 이름 앞에서,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길, 다시 들러온 부르심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길이 저의 몫이 될 것이라고는 선뜻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고 계신 부모님의 곁에서 그 길의 외로움과 무게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택하기보다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사업을 시작하고, 전공을 살려 세상 속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

과 복음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느껴본 적 없는 자유함과 함께, 처음 제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광야에서 드린 한 가지, '성실한 기도'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지난 1년의 기간은 저에게 작은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은 분명했



이은빛
장신대 신대원 3학년
환경직 장학생

지만,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고, 현실의 숫자 앞에 제 믿음은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성실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리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핑계가 끊어지고 길이 열린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 재작년 처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당시 벽차고 떨어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물질을 핑계할 수 없도록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고, 저를 비롯한 장학생 한 분 한 분이 더는 형편을 이유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를 통해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제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자 격려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섬김’으로 흘러가도록

우리 각자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베풀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기념사업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전도사님들께 식사라도 한 끼 더 대접할 수 있었고, 사역하며 맡겨진 아이들과 길을 가다 만난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더 베풀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는 ‘없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길을 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을 닮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저희가 받는 이 장학금에도 목사님의 신앙과 섬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이 이름에 담긴 가치를 깨닫고 우리 역시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훗날 저 또한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함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섬김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크고 화려한 사역을 좇기보다 하나님 앞에 앞드리는 자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로 살겠습니다. 본 기념사업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손길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실과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세계로 펼쳐지는 '환경직 톨아보기' 국제화



정준희 목사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



환경직 상금으로 건축된
아라스타마르 본 기독교찬양중학교
SMP(Sekolah Menengah Pertama)
Kristen SONG Arastamar Bone

현지 사역의 실상과 고충

2024년 환경직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송광옥 선교사가 상금 전액을 쾌척해, 서티모르섬 외딴 지역에 중학교를 건립했다. 그 뜻깊은 준공을 축하하고자 2025년 11월,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정천우 부이사장과 차영균 사무총장, 그리고 필자가 현지를 방문했다. 1박 4일의 유례없는 촉박한 일정이었으나, 안내를 맡은 송 선교사로부터 현지 사역의 실상과 고충을 전해 듣는 내내 영락교회 방문단 일행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이 일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현지 목회자들의 현실이었다. 대다수가 현지 신학교를 졸업한 후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주를 이루는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고 재교육할 자원이나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었다.

'환경직 톨아보기' 첫 국제화 사업 추진

이에 일행은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영락교회와 환경직 목사기념사업회가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환경직 톨아보기' 프로그램의 첫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환경직 톨아보기'는 한 목사의 삶과 신앙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학습하며, 시대적 도전과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한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환경직 톨아보기'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절실한 영적 재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송 선교사와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 부활절 직후인 4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인도네시아 교역자 10여 명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경직 목사의 신앙 여정과 발자취

한국전쟁 전후 한경직 목사가 사역했던 암울한 시대상, 정치·이념적 혼란 속에 고통받던 민중의 삶,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한 목사의 신앙 여정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분명 큰 도전과 위로가 될 것이다.

체류 기간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은 한 목사의 신앙과 사역에 관한 세미나뿐 아니라 그 발자취가 서린 주요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영락교회와 남한산성우거처, 영락기도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이 그곳들이다. 이를 비롯해 기회가 닿는 대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 제암리교회, 정동제일교회 등을 둘러보며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또한 임진각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 탐방을 통해 분단국가가 직면한 현실을 확인하며, 지친 사역자들이 영적·정신적으로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라스타마르 본 기독교찬양중학교 기증문서와 헌당문서 전달식

전 세계를 향한 선한 영향력

첫걸음을 떼는 '국제 한경직 톨아보기'가 귀한 결실을 보아, 향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도한다. 세계가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은 그만한 가치와 울림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독자들과 만날 즈음, 영락교회 마당에서 탐방 중인 인도네시아 교역자들을 마주친다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건네보자.

“살라맛 다탕!(Selamat Datang, 반가워요!)” **만남**

한경직복음학교



한경직복음학교는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 유산을 배우고 실천하는 5주 과정이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한경직 목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를 1박 2일 동안 살펴보는 '한경직 톨아보기 캠프'가 진행된다.

본래 영락교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경직 톨아보기 캠프는 2025년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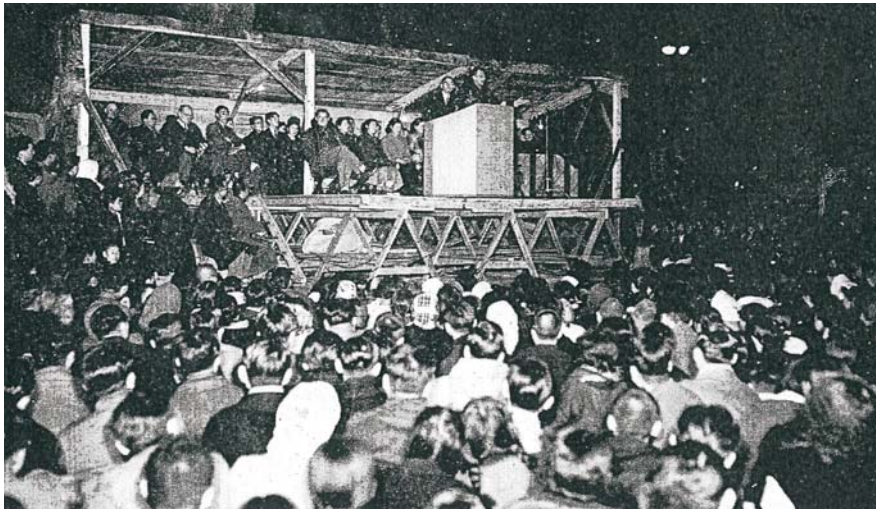
독교 학교 학생들까지 확대되었다. 총 9개 기독교 학교에서 7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영락교회와 영락보린원, 영락애니아의집, 남한산성, 우거처, 숭실대학교를 방문하며 한경직 목사가 붙들었던 복음의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한경직 톨아보기 캠프는 해외로 범위를 넓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번 캠프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영적 도전과 신앙적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만남** 김승겸 전도사 _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한경직 목사와 빌리 그레함 목사



한진유 은퇴장로
중구·용산교구



부산집회에서 설교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와 통역하는
한경직 목사(1952년 12월)

정말 서울영락교회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했을까?

2000년 4월 24일(월) 한경직 목사의 장례예배 때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William Franklin Graham)는 마삼락 선교사(Samuel H. Moffet)를 통해 조사와 조화를 보냈다.

그는 조사에서 “나는 1952년 크리스마스 때 한국을 방문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울영락교회에서 추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른 새벽에 매일 많은 교인이 교회에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 나에게서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했다.

1952년 연말은 한국에서 전쟁이 심할 때이고, 우리 교회는 부산에 있었으므로 서울영락교회에서 두 분 목사가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휘튼대 도서관에서 발견된 64쪽 소책자, 숙제를 풀다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자료가 없어서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한경직 평전을 집필하고 있는 최재건 박사가 자료를 찾던 중, 그레함 목사가 졸업한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휘튼대학교(Wheaton College) 도서관에서 그레함 목사가 한국 방문 후인 1953년 3월에 출판한

64쪽 분량의 소책자 「나는 전선에서 당신들의 아들을 만났다」(I saw your sons at war)를 지난 가을에 발견했고, 연말에 우리 교회에 복사본을 기증했다.

전선 한복판의 복음: 부산에서 시작한 영하의 집회

책 내용을 보면, 1952년 12월 초에 한국 전선에 있는 미군들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위문하려는 계획을 세운 그레함 목사는 한국에 처음 가는 것이라, 이미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밥 피어스 목사(Bob Pierce)에게 같이 가고 하여 함께 일본으로 갔다. 동경의 유엔군사령부에 가서 한국 방문에 대해 의논한 결과, 방문 기간의 숙소와 교통수단, 집회에서 시설 준비를 미군 측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다.

그레함 목사 일행은 1952년 12월 14일(주일) 저녁에 군용기 편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에서는 18일까지 미군부대 및 야전병원, 포로수용소, 고아원 등을 방문하고, 매일 밤 시내에서 대중 전도집회를 했다. 군 공병대가 부산 시내 큰 교차로에 있는 광장에 임시 무대와 음향시설,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었다. 첫날에는 6,000여 명이 모였고, 마지막 날에는 영하 15도라는 강추위에도 8,000여 명이 모였으며, 매일 수백 명씩 예수를 영접하여 집회 후 늦도록 영접기도를 해주었다.

한국 방문 동안 한경직 목사가 동행하며 집회 때 설교 통역을 해 주었는데, “한 목사는 내가 만난 통역자 중 가장 훌륭한 통역자였다. 그는 나와 호흡을 맞추어 나의 뜻과 감정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내가 팔을 들면 그도 팔을 들고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그도 목소리를 낮추어 주었다.”라고 회고했다.

19일에는 대구의 극장에서 미군들에게 설교하고 고아원과 모자원을 방문했으며, 저녁에는 장로교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한 후 미군사령관 전용 객차로 서울로 떠났다. 그레함 목사 일행이 자는 동안 객차 앞뒤 칸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해 주었는데, 산악지대를 지날 때 가끔 무장게릴라가 습격했다고 한다.

계엄의 서울, 영락교회 새벽기도로 이어진 길

서울에는 20일(토) 아침에 도착했는데, 한경직 목사는 서울에 다시 오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시내 건물은 거의 80%가 파괴되어 영락교회 근처도 다 폐허로 변했는데,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영락교회 예배당을 보며 그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예배당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었다.

서울은 계엄령 상태였고, 시민 대부분이 남으로 피난하여 시내에는 군인 외에 민간인의 왕래가 별로 없었다. 한강을 건너 서울에 오려면 군부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밤낮으로 포격과 폭격 소리가 들렸고, 밤에는 섬광도 요란했다.

서울에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에 갔는데 모두 큰 소리로 기도했고,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날 저녁 집회가 열렸는데 난방은 없고 기온이 영하 12~14도였는데도 매일 2,000여 명이 모였고, 미군도 몇백 명씩 참석했다. 그들은 전선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단체로 이곳에 왔다가 밤늦게 부대로 돌아갔다.

그래함 목사 일행은 경비행기, 헬리콥터, 지프차로 일선을 방문하여 집회를 했으며, 그때마다 많은 병사가 예수를 영접했다. 서울에 있는 군 병원과 인천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을 방문하여 부상병들을 위문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기도 했다. 24일 저녁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일선 부대에 가서 추운 밤을 떨며 취침했다. 25일 크리스마스 날, 두 곳의 부대를 방문하여 전도와 위문집회를 한 후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 여의도 비행장에서 군용기 편으로 동경으로 갔는데, 비행장에 있을 때 공습경보가 울려 병커 속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우리 교회 집회 때 빌리 그래함 목사와 한경직 목사(1952년 12월)

40여 년 동역: 초청, 통역, 템플턴상까지

미국으로 돌아간 그래함 목사는 한국에서 함께했던 한경직 목사를 1953년 6월에 미국에서 개최한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에 강사로 초청하여 함께 전도대회를 했고, 그 후에도 한경직 목사는 미국, 독일, 스위스, 홍콩, 대만 등에서 개최한 여러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에 강사로 초청받았다.

한경직 목사는 한국기독교연합회 주최로 1956년 2월 그래함 목사를 초청하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할 때 대회준비위원장을 하며, 집회 때는 직접 설교 통역을 했다. 당시 서울운동장 전도대회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위원들도 참

석했다. 1973년 5~6월에는 한경직 목사가 대회장을 맡아 그래함 목사를 모시고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열었고, 1984년 8월에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 행사에서는 여의도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그래함 목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198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는데, 그의 추천으로 1992년에 한경직 목사가 템플턴상을 받았다. 이처럼 두 분 목사는 40여 년 복음전도 현장에서 함께 수고하고 친분을 나누었다. 그는 조사에서 “한경직 목사와 함께할 때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으며, 내가 좀 더 그와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라고 회고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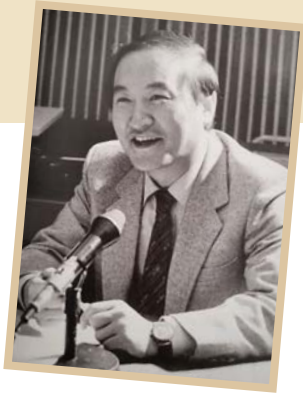
※ 참고 사항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란 간 성도들은 부산, 대구, 제주에서 영락교회를 세우며 신앙생활을 했고, 한경직 목사와 당회를 위시한 교회 조직은 부산에 있었다. 서울에 남아 있던 성도들은 목사 없이 몇 분 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고, 한 목사와 당회는 휴전 이후 1953년 10월에 서울로 왔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이철신 목사님과의 대화



MBC 문화방송 근무 시절

저의 고향은 평안북도 벽동(碧潼)입니다. 수풍댐을 따라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자강도 못 미처 창성군과 초산군에 인접한 곳이지요. 이북 사람 중에도 벽동을 잘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혹시 벽창우(碧昌牛)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벽창호라고 잘못 알려진 말인데요, 벽창우란 벽동, 창성 지방의 소처럼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고지식하여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지방 소가 힘도 세고 일을 잘해 발농사에 제격인 동물인데, 평소 주인 말에 잘 따르다가도, 수가 틀리거나 아니다 싶으면 꿈쩍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고집쟁이인 특성을 비유하여, 소신은 있으나 고집이 세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벽동과 창성 사람들을 빗대어 부르는 말입니다.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님

우리 가족은 1948년 6월, 38선을 넘었습니다. 집안 어른의 결단으로 식구별로 뿔뿔이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었으나, 그때도 이미 감시와 숙청, 탄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르주아와 인텔리겐치아,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실형민이 고향 땅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이태 후에 6.25사변이 나고 전쟁의 고통을 온 나라가 겪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피난길 와중에 경북 왜관, 성주, 영천을 거쳐 경주에서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고통과 희생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평의전(평양의학전문학교) 출신이신 아버지는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강



차인태 은퇴장로
중구·용산교구



▲ 시무장로님들과 교회 마당에서

◀ 김운성 목사님과 은퇴장로 수련회에서(설악수양관)

원도 전선에서 전쟁을 치렀고, 자식들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먹여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남매를 온전히 지켜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복 후 서울로 올라와 미션 스쿨인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안순근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고,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환경직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일상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60년대 말 방송을 시작하면서 세상 속에 저의 달란트를 나타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흑백 TV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 가까이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아 온 것을 생각할 때, 감당하기 힘든 고마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라디오 심야 DJ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 차인태의 출발 새 아침, 장학퀴즈(1973~2024 문화방송, 교육방송), 역대 대통령 취임식, 국가 주요 행

사 등 100여 개 프로그램의 방송을 하면서 나름 보람을 갖게 된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1974년 8월 고(故) 육영수 여사의 장례식 중계방송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몇 차례 건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청년부, 베드로반, 국제예배, 자유인예배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와 사랑과 믿음을 나누었고, 교회 구석 구석에 스며 있는 선배들의 흔적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당회원이 된 이후 시온찬양대, 홍보출판부, 사회복지재단, 음악부 봉사를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교회 당회 서기를 마칠 즈음 갑자기 닥친 시련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B세포 미만성 악성 림프종'이것이 저의 진단명이었습니다. 제 몸 안에 악성 림프종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심장과 폐 사이 혈관에 파리 모양의 종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혈액암이었지요. 참으로 길고 지루한 병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력

과 체력, 면역력이 떨어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자존감의 상실과 헤어지기 어려운 무력감, 그리고 고통 속에서 눈물과 허탈함, 원망과 분노가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과 기도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 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눈물로 읽으면서 한없이 되뇌었습니다. 또한, 주말 새벽마다 암병동 복도를 찾아오는 찬양대원들의 찬송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찬송은 천상의 천사 음성이었지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해 겨울 교회 프락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에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1월 어느 월요일 오후 교회를 찾았습니다. 몹시 추웠지만 벤엘기도실은 따뜻했습니다. 칭칭 싸매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요. 감사의 눈물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혈액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이번에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장 판막 치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이상이 생겨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지요.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 다. 지금 제 몸속에는 인공 심장 박동기(pacemaker)가 들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늘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감사와 share’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지내온 시간입니다. 방송인으로, 대학교수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받은 과분함을 이제 내려놓게 하옵소서. 가정과 좋은 이웃, 기도로 중보하는 많은 이에게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라는 말씀처럼 찬송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여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만남**

고난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자리



견고했던 자아의 성벽

저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자란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범명이 있을 정도로 독실하셨으며, 저 역시 인적사항의 종교란에 망설임 없이 '불교'를 적어 넣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교회만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 당부하셨으며, 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와 결이 다른 이들이라 생각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어떤 목적이든 이를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계한 대로 번듯한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이들을 얻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기에 제 자아는 더욱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도 나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설계도, 인생 최대의 위기

평온하던 삶에 균열이 생긴 것은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때였습니다. 회사 업무 가중,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과 독박 육아,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아내는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심 끝에 아내는 휴직하고 아이들과 함께 처가가 있는 경주로 내려갔고, 저는 서울과 경주를 오가는 고단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간 매 주말 새벽바람을 맞으며 졸음운전의 위험 속에 서울-경주 간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이 악물고 내 의지로 이겨내겠다고 견뎠지만,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마구 쏟아냈습니다.



최민혁 성도
노원교구

부모의 다툼에 아이들의 정서도 흔들렸고, 흐려진 판단력으로 아내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의 재테크 투자마저 실패하며 경제적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자부심은 독이 되어 저를 갇아 먹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온 빛, '이제 내 품에서 쉬렴'

암흑 같은 터널 끝에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전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주말에 만난 아내의 얼굴은 이전의 일그러진 표정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저토록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단 말인가?' 호기심과 절박함이 섞인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 교회 문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오롯이 제 귀를 거쳐 심장에 꽂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편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미아가 되었다가 며칠 만에 엄마를 만난 아이처럼, 제 마음속에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내 품 안에서 꼭 쉬어라.'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저와 아내는 다시 하나가 되어 갔고, 고난을 함께한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십자가의 사랑으로 빛어가는 새로운 삶
 그날 저는 '회심'했습니다. 제 잘난 자아의 틀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의 모습

때로 고집 센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 원망과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과 달라진 점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팬데믹과 주말부부라는 고난은 제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영화 <에반 올마יתי>의 한 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만남**

영화 <신의악단>을 보고



정하민 전도사
하나원교회

<신의악단>, 세 번 보게 된 이유

필자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 않는 편이다. 내용과 결말을 이미 알면 감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두 번 이상 본 기억도 거의 없다. 그런데 <신의악단>은 한 달 사이에 세 번을 관람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필자에게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다.

이 영화가 특별했던 이유는 배경이 되는 북한이 필자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속 이야기가 어린 시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나의 이야기'와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1994년 평양 칠골교회에서 빌리 그래함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또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이야기의 생동감이 더해졌다.

'가짜'로 시작해 '진짜'가 되는 신앙

영화는 처음에는 '가짜'로 시작했다가 점차 '진짜' 신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는 체제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심하면 처형당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 당국은 국제 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종교 행사를 이용하려 한다.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고 보위부 장교 박교순이 이를 관리한다.

기독교인을 색출하던 그는 찬양과 기도, 성경 읽기를 단지 연출로 여긴다. 그러나 연기로 시작한 기도는 점차 진지한 고백이 되고, 무심코 읽던 성경 말씀은 그의 마음에 균열을 낸다. 찬양의 가사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눈물이 되게 했다. 결국 그는 공연이 끝난 뒤 단원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탈북시킨다. 그리고 자신은 눈 덮인 벌판에서 총살을 당한다.

내 이야기로 다가온 '가짜 예배'의 회심

20여 년 전 많은 북한 주민이 고난의 행군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다. 처음에는 먹을 것과 피난처를 얻기 위해 시작했다. 그 속에 필자와 아버지도 있었다. 가짜로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척했지만, 결국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아버지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 겨울, 필자가 보는 앞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복송되었다. 북한 보위부 마당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일어나셨다. 결국 정치범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문 끝에 2002년에 돌아가셨다.

지금도 이어지는 탈북 여정과 복음의 변화

최근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민 중 절반 정도는 기독교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들어온다. 동남아에서 약 3개월 동안 신앙교육을 받는데, 처음에는 한국에 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한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로 하나원 입소자의 약 70~80%가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새벽기도에도 참여한다.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변화된다. 거짓은 진리를 만나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진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핏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고, 냉혈한 박교순도 순교자가 되며, 절망 속의 탈북민들도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찬양과 기도로 남는 마지막 장면

영화의 몰입도를 높인 것은 OST 찬양들이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광야를 지나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길을 만드시는 주’가 극의 흐름과 어우러졌다. 특히 박교순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에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부르는 장면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북한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며 필자의 마음에서도 기도가 터져 나왔다.

- 하나님, 동토의 땅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순교의 피와 한국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 분단의 장벽을 거두어 주시고 복음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 주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읽던 성경 말씀이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가짜 찬양이 진짜 신앙이 되고, 핏박자가 순교자가 되며, 절망의 땅에서 산 소망이 노래가 되듯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북한의 변화도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 언젠가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자유롭게 부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만남**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여행



양은결
소년2부



찬양팀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 이번 봄맞이성경학교는 이전보다 더욱 설레고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예배 찬양 시간에 소년부 찬양팀으로 설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 처음에는 긴장해서 조금 틀리기도 하고 웃으면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찬양팀의 울동으로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는 생각에 부듯해지고 너무 기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긴 질문

찬양이 끝난 뒤 이어진 뮤지컬 예배에서 '변화 스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울이 처음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바울은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셨을까?”

사명 스테이션에서 찾은 답

다음으로 '기쁨 스테이션'과 '영락 가스펠랜드'에서 기쁨이를 찾는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일 마지막 '사명 스테이션'을 통해 제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명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마 후회하거나 그 고난이 싫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던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영락교회 모든 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품게 된 세 가지 다짐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1.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년부에서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자주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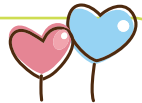
2.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기도해 준 것 같이,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아직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해서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미래에 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바울처럼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아동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Gospel Power, 아동부!'(로마서 1:16~17)라는 주제로 봄맞이성경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450여 명의 어린이와 250여 명의 교사 및 학부모 봉사자가 연합해 뜨거운 복음의 축제가 되었다.

첫날 오전, 어린이들은 창작 뮤지컬 '변화형 특급열차'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오후에는 '영락 가스펠랜드'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통해 기쁨을 만끽했으며, 부서별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고난에도 찬송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깊이 깨달았다. 이어지는 주일예배에서는 바울의 삶을 배우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영락의 어린이들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며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함을 확신했다. 이제 아동부 모든 어린이가 'Gospel Power'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만남**

김혜민 전도사_ 아동부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찬양한 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중등부 수련회



배리아
중등부



이번 수련회를 신청할 때 솔직히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가고 싶은 마음에 일단 신청했습니다. 다행히도 갈 수 있게 되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느낀 '만남'의 따뜻함

수련회에 가기 전, 같은 조에 친한 친구가 거의 없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과의 인연을 맺어주셔서 새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어떤 기분일지, 느낌은 어떤 느낌일지,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많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상처와 아픔, 힘들어 사라지고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묵상으로 더 가까이

찬양 시간에는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도 남 눈치 보지 않고 신나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평소 핸드폰을 보며 웃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산책하며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걷다 보니 주변



의 자연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그리고 다짐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여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련회에 온 순간부터 수련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로 이동하고, 편안하게 자고, 친구들과 놀고, 맛있는 밥과 간식을 먹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대단해서, 제가 노력해서, 당연하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마지막처럼 부르짖던 밤,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



1 단체 레크리에이션 2 찬양팀 장기자랑 3 교사팀 장기자랑(목사님, 장로님 까메오)

변하지 않는 삶 앞에서, 망설이던 수련회

사실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에 갈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진학을 앞둔 입장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도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제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수련회에 간다고 해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연례행사처럼 가는 것이 성경학교이고 수련회였음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제 삶은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저녁 집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땀이 날 정도로 뛰면서 찬양했는데도 제 인생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



김태현
고등부

다. 매년 마지막 날 파송예배를 마치고 고작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달가워하시지 않을 언행을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수련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눈물 흘리고, 주님이 아니라 저 자신에 집중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세상의 여느 학생처럼 살아가던 저는 어느 순간 제 사고에 갇혀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저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어쩌면 의미를 찾지 못해 기억의 저편에 묻어둔 시간이 도리어 제 목을 졸라 죽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그렇게 또다시 겨울 수련회 기간이 찾아왔고, 이른 개학 때



◀ 공동체 게임
저녁 집회 ▶



문에 첫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날 즈음 되어서야 기도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항상 그랬듯 별다른 일 없이 그냥 흘러보냈고, 또 반복되는 저녁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를 시작할 무렵, 무슨 바람인지 갑자기 이번이 주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기도원에 있는 누구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로웠던 워십과 뜻깊었던 목사님의 설교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제게 가장 큰 은혜는 기도회에서 찾아왔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는 한 가지 마음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듣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전의 나는 죽고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기도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악을 쓰며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거나 한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오직 주님과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음악 소리와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과 나, 단둘이서만 관계 맺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신앙이 증언하는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결심과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어쩌면 그냥 그제 익숙해서 유지되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목사님들이 고백한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친구들이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언하고 그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저도 급해지기 시작했고, 저 스스로 주님을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어릴 적 만난 그분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제가 만난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교만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의 연약함마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관계 맺고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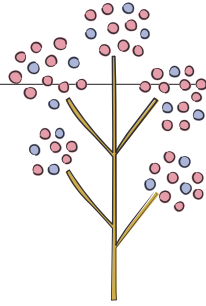
다시 세상으로, 이제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수련회를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벌써 세상의 티가 조금 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나를 순백의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남**

서로의 삶을 돌보는 '주는나무'



김선용 집사
청년회 주는나무



말씀에 뿌리내린 청년 공동체의 걸음

청년회 성경부서 '주는나무'는 말씀 안에 뿌리내리고 서로 세워 주며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모인 청년들이 예배와 나눔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꿈꾸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결단

2026년 주는나무는 '서로의 삶을 돌보는 주는나무'라는 주제를 붙들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지기'(리더)로 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던 중, 교회에 등록하고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떠난 청년들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지나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주는나무를 섬기시는 박요섭 전도사님과 이 마음을 나누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히 돌보는 자리에서 출발해 내 일을 넘어 다른 이의 삶까지 살피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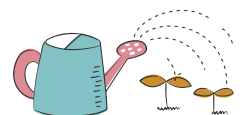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의 훈련

그래서 올해는 관계를 한 걸음 더 깊게 세워 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에는 '부서원 이름 빙고'를 통해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얼굴들이 조금씩 또렷해졌고, 거리도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2월에 진행된 '리더십 수련회'에서는 각자의 강점을 돌아보고 리더로서 어떤 태도로 섬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나누며 책임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단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관계에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서로의 삶과 고민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질문을 함께 풀어가는 교역자 특강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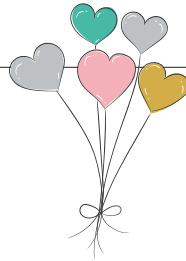
그 열매로 준비된 것이 박요섭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교역자 특강입니다. 신앙과 진로, 관계와 정체성 등 크리스천 청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질문들을 말씀 안에서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쌓이며 '서로의 삶을 돌보는 주는나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026년, 주는나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서서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입시의 광야에서 만난 따뜻한 동행, 대학부 1부로의 초대



최윤찬
대학부 1부 회장



▲ 2025년 여름수련회



▼ 새로운 예배실(소강당)



베드로부, 대학부 1부로 새롭게 개편

대학부 1부는 입시 재도전과 진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부’는 2026년부터 ‘대학부 1부(베드로마를 중심 예배)’로 새롭게 개편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학부 1부의 변화에 대해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제가 경험한 ‘베드로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입시 재도전을 결정한 후,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가족들과 주변 분들의 권유로 ‘베드로부’를 찾았습니다.

2025년 1월 첫 주일부터 조금은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부에 찾아갔습니다. 처음 예배당 문을 열 때, 선배들과 선생님들께서 밝은 미소로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배와 선생님들이 재도전의 과정을 거치신 경험담을 직접 들려주시니 마음이 놓였고, 성공담도 들려주셔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베드로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이 재도전하는 제 친구들도 베드로부로 오도록 권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 외롭고 지친 저는 매 주일 베드로부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섬기는 로벤찬양팀부터 사랑으로 직접 간



▲ 2026년 베드로마을 광장홍보

식을 만들어 섬겨 주시는 선생님까지, 벗님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베드로부의 따뜻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부를 거쳐간 선배들이 중요한 일정마다 자진해서 찾아와 벗님들을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며, 수험 기간에 받은 사랑을 선배가 되어 학생회와 찬양팀으로 섬기며 이어가는 베드로부만의 각별한 끈끈함과 선순환되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수련회와 수능 전 기도회에서 벗님들을 한 사람씩 앞에 세워두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던 은혜로운 시간 덕분에 입시의 과정을 잘 견뎌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저와 제 친구들에게 2026년 대학부 1부를 섬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개편된 대학부 1부 예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부 1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베드로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부터 오전 10시 기념관 5층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모였고, 대학부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림홀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베드로부는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벗님들을 배려하는 취지로 오전에 기도회 모임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한 필요성과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작년까지 '대학부'로 예배드리던 공동체는 '대학부 2부'로, '베드로부'는 '대학부 1부(베드로마

을 중심 예배)'로 명칭을 변경하여 방덕종 목사님의 지도하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는 기존 50주년기념관 5층에서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리모델링된 소강당으로 옮겼고, 예배 시간도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부 1부와 대학부 2부의 연계성을 높여, 대학부 전체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벗님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영락 대학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회복을 소망하며

올해도 대학부 1부는 입시를 다시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벗님들, 진로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벗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시의 여정을 거치며 많이 외롭고 막막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베드로마을 벗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벗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대학부 1부(베드로마을 중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시 재도전과 진로의 여정 가운데 있는 벗님들이 있다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대학부 1부로 초대합니다. **만남**

주님과 함께 걷는 20대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여정

대학부 2부로 초대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부 2부를 섬기고 있는 111대 'Allways' 학생회 회장 안태환입니다. 우리 대학부 2부는 캠퍼스와 직장 등 각자의 치열한 일상에서 20대만이 겪는 진로와 관계, 신앙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안태환
대학부 2부 회장



- ◀ 대학부 2부 111대 학생회
- ▼ 2025년 대학부·고등부 캄보디아 단기선교 'Apostolos'





▲ 2025년 SMC 가을음악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예배

대학부 2부 예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의 수고로 채워집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CHESED 찬양팀, 아름다운 성가로 섬기는 SMC 찬양대, 방송 부스에서 영상과 자막, 유튜브 송출을 책임지는 RHEMA 미디어팀 까지, 각 사역팀이 기쁨으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 역시 이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드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작은 가족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삶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대학부 2부는 바울, 요셉, 다윗, 그리고 새가족을 위한 웰컴마을까지 총 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마을에는 5~6개의 작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 모이는 GBS(Group Bible Study)에서는 그날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주어진 질문들을 나누며, 우리의 일상과 고민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풀어갈지 서로의 생각을 편안하게 주고받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20대 청년들이 도전을 얻고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넘어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주일예배 외에도 대학부 2부의 일상은 다채롭습니다. 여름과 겨울수련회를 통해 일상을 떠나 은혜를 누리고, 전남 영광 등지의 국내 선교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지로 떠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게임, 축구, 연극 등 각자의 취미로 뭉친 소그룹부터, 매주 평일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업데이트 기도팀', 그리고 이웃을 향한 봉사모이는 '이음'까지 다양한 '활동팀'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주중에도 끈끈한 교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대학부 2부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지하 2층 드림홀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에 20대 청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대학부 2부 청년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네팔에서 다시 만난 주님의 어넌띠쿠시(끝없는 기쁨)와 넘치는 사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10)



네팔의 아이들
(왼쪽부터 세레야,
프로딕차, 씨디체,
필자, 파번 하멜)



목사님의
기도



윤희정 집사
노원교구
제4여전도회 부회장

17년 전, '네팔'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기다

저는 약 17년 전, 선교단체를 통해 네팔에서 1년간 단기선교를 했습니다. 영락교회 대학부 시절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후, 그 사랑에 사로잡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빈민가와 학교, 거리와 교도소를 오가며 복음을 전했고,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깊이 배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네팔'이라는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 직장과 결혼, 육아의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야지.'라는 말만 되뇌던 저에게 2026년 설 명절 기간에 의료선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간호사이신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가족과 교회의 많은 분의 기도 가운데 다시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체된 공항, 그러나 솟구친 '어녀따쿠시'

7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네팔 공항에서는 비자와 의료 장비 및 문화사역 물품이 담긴 39개의 캐리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몸은 많이 지쳤지만, 사역이 시작되자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했고, '다시 이 땅에서 있구나.' 하는 감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복과 풍선, 네일 스티커 위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

저는 문화사역팀에서 한복을 입혀주고 사진을 찍어주며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17년 전 배웠던 서툰 네팔어로 인사를 건네자, 현지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문화사역팀에서 풍선을 불어주고 팝콘을 나누며 아이들과 웃고 뛰노는 시간 속에서, 저는 단순한 봉사자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의 자리에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순간이 마치 천국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네일 스티커를 붙여 주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이 작은 만남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화사역팀의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 몇몇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써디체, 세레야, 프로디차, 파번 하멜, 발렌티나... 그들의 가정 이야기와 꿈,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까지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전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주던 모습

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네팔에 또 와요."라며 아쉬워하던 그 맑은 눈빛에,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이틀에 걸쳐 300여 명을 맞이하며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섬겼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피곤하기보다 오히려 더 힘이 났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낼수록 제 영혼이 더 충만해졌고,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이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과팀의 수술



치과팀의 치과진료

643명의 진료, 그리고 '한 팀'으로 드린 예배

네팔 의료선교단과 함께하며 모든 팀의 수고와 헌신이 이 짧은 글에 다 담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기도팀, 접수팀, 의과팀, 치과팀, 간호팀, 약무팀, 문화팀, 질서팀, 촬영팀, 친교팀의 아낌없는 헌신은 매일 저녁 기도회 후 진행된 팀별 보고와 간증을 통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진료를 위해 총 643명이 오셨습니다. 초음파 138건, 주사 63건, 수술 59건, 치과진료 207건, 수액 25건, 드레싱 7건, 검사 304건 등 설 틈 없이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화사한 미소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넘치는 사랑, 끝없는 기쁨 네팔을 향한 계속될 기도

단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원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믿음의 어린이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3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한 달처럼 길고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다시 부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팔 어년떠쿠시교회의 레크미 목사님, 우사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기를, 그곳에서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한두교와 불교문화관에서 살아가는 네팔 땅을 주님께서 궁홀히 여겨 주시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자 빛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앞드리게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마야 가르추 단야바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네팔 어년떠쿠시교회에서)



네팔 의료선교단 소감 한마디

▶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축복받은 네팔 믿음의 자녀가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네팔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합니다.

▶ 45년 전, 우리나라 최초 의료선교사로 33,000의 우상이 있는 여덟 세력에, 가난과 축박한 네팔 땅에 들어가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순교적 삶으로 40년간 복음의 씨를 뿌린 강원희 선교사를 기억해 봅니다. 그 열매로 오늘날 의료선교부가 순조롭게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위로를 함께하는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 되돌아보니 함께했던 단원 한 분 한 분이 어느새 가족처럼 느껴져 그립습니다.

▶ 하나님께서 세우신 네팔 레크미 목사님과 사모님, 어년띠쿠교회와 성도들이 계셨기에 의료선교와 문화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 오직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선교의 사명에 충실한 레크미 선교사 부부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 네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시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행복했던 여정으로 주님 은혜와 감사로 3kg 체중 증가와 주신 축복 신앙 3cm 확장! 성장합니다.

▶ 레크미, 우사 선교사님, 레크미선교사후원회의 헌신으로 카트만두에 세워진 어년띠쿠교회에 의료선교부의 봉사로 네팔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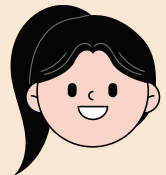
▶ 사랑과 기쁨의 땅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평 터뜨리며 네팔의 착한 영혼들과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네팔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렌즈에 잡힌 한없이 많은 눈동자에서 우리를 향한 환영과 의료봉사에 대한 감사함을, 예배 시 보여준 간절한 눈빛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눈동자, 그 간절한 눈빛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레크미 선교사와 우사 사모를 위해 늘 기도하렵니다.

▶ 네팔 땅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불철주야 백성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레크미, 우사 선교사님. 가난한 땅을 향해 걸어나가는 네팔의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들의 눈동자. 38명의 천사와 같은 헌신자들. 선교지에서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 저희들을 네팔 복음화에 마중물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기독교사들과 함께한 '2026년 영락 기독교사대회'



이찬희 안수집사
마포·영등포교구
선교부 학원선교팀장



8개 학교 320여 명의 동역자가 예배로 결속한 선교의 장
2026년 영락 기독교사대회가 우리 교회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와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의 주관으로 2월 26일 (목)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기독교사'(로마서 1:16~17)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영락학원(영락중학교, 영락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학원(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보성학원(보성여자중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등 3개 학원의 이사 및 8개 학교의 교사 교직원 3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준 목사(학원선교)의 인도로 진행된 ‘여는 예배’에서는 박일환 장로(영락학원 부이사장)의 기도에 이어 김진우 목사(선교부 전담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영상으로 전해진 축사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는 먼저 기독교 사학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신 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은 교사가 지킨다는 사명감과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당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신학기 개학 준비로 바쁜 가운데, 식순에 따라 8개 학교 교장, 교사, 교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환영하는 김순미 장로의 환영사가 있을 후, 선교부장 서상현 장로가 내빈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오전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학교별 소개에서는 8개 학교 교장들이 나와서 각 학교의 개요와 특성, 학원선교 활동, 올해의 계획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과 문화 공연… 영적 재충전으로 위로와 화합의 시간을
오찬 후 이어진 2부 순서는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교수)의 특강과 영락교회 선교부 문화선교팀의 문화 공연, 정은지 집사(해피인바디 대표)가 진행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되었다.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 수업, 어떻게’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기독교사의 사명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온전한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실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품고, 선교지인 학교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에 이어 선교부 문화선교팀이 준비한 낭독극 ‘셋 집의 편지’ 공연이 있었다. 이 작품은 과거 로마로 압송되어 가

택에 2년간 갇힌 바울과 현재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로 살아가는 지혜 선생님의 각기 다른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갇힘’의 또 다른 의미를 전하는 내용으로, 기독교사들에게 뜨거운 위로와 응원을 전했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추가 공연을 문의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별로 팀을 이루어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개 인기와 팀워크를 뽐내며 서로 화합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2026년 기독교사대회를 기쁨으로 마무리했다.

‘현장의 선교사’… 영락과 함께 세워가는 기독교육

영락교회는 여러 학교를 세워 다음세대를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선교부 학원선교팀은 3개 학원(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 8개 학교와 함께 학원선교를 통한 기독교적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위해 매년 2월 ‘영락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6년 영락 기독교사대회가 교사들에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선교적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동역자 간 격려와 협력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넘어 ‘거룩한 소명’으로, ‘현장의 선교사’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한다. 학원선교팀은 앞으로도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만남**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춤추는 교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

부활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멈추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생명입니다.

영락교회 전도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특별한 몇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교인과 함께 하는 전도부,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배우고 동행하고 기도하며 함께 감당하는 교회의 공동 사명입니다.

전도부는

- 전도의 삶을 배우도록 돕고
- 전도의 현장을 연결하며
- 전도의 문화를 세워가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가는 전도’를 지향합니다. 처음 전도하는 성도, 오랫동안 전도해

온 성도, 조용히 중보하는 성도 모두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 전도현장사역

● 군 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에게 복음과 위로를 전합니다. 낮은 환경과 긴장된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다시 서는 청년들을 돕습니다. 예배와 간증, 기도를 통해 복음이 삶의 방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군 전도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 병원 전도

병상에 있는 환우와 보호자에게 말씀과 기도로 소망과 평안을 나눕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깊은 자리에서 복음은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짧은 기도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한 번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 노방 전도·노숙자 전도

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섬김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간식과 생필품을 나누는 손길 속에 존중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동행자임을 고백합니다.

● 전도부스(전도안내사역)

전도는 어렵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부스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도의 시작점입니다. 전도 자료를 나누고, 현장 전도에 동행하며, 전도에 대한 궁금함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떼는 성도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공간입니다.

▶ 전도훈련학교

‘전도는 결단이 아니라 성장 과정입니다.’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전도훈련학교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대히 전하며,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전도자로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전도훈련학교는 그 여정을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 전도훈련학교 과정

I. 기초과정 - 나의 전도학교 (4주 과정)

전도의 기초를 세우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성경에서 다시 배우기, 나의 복음 이야기 정리하기, 관계 전도의 실제 이해, 삶에서 적용하는 전도 실습이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II. 심화과정 - 단계별 전도폭발훈련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복음을 명확히 전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복음 제시 훈련, 단계별 강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복음 연결하기, 실제 단계별 강의 사례 나눔과 피드백, 현장 실습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는 혼

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며 자라는 과정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III. 전문과정 - 전도 리더 세움(임상훈련)

지속적인 사역과 동역을 위해 전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전도 현장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 직장인예배

일터는 또 하나의 선교지입니다. 치열한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직장인예배는

- 삶과 신앙을 연결하는 말씀을 듣고
- 일터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금요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월요일의 회의실과 사무실, 현장과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일과 신앙의 균형을 고민하는 모든 성도를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부활의 기쁨, 이제 흘러가게 하십시오

부활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복음으로 춤추는 교회는 기쁨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부는 전 교인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만남**

전도부

육군사관학교 제82기 기독생도 졸업 및 임관 감사예배를 다녀와서

선교부

지난 2월 23일(월), 서울 공릉동에 있는 육군교회에서 육군사관학교 제82기 기독생도 졸업 및 임관 감사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 졸업 및 임관 감사예배는 총 96명의 기독생도가 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는 뜻깊은 자리로, 믿음 안에서 준비된 청년들이 조국을 섬길 리더로 세움 받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1부 감사예배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 '제복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고 충성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 군을 섬기라고 권면했으며, 동시에 제복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미래를 개척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삶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사 교장인 박후성 중장 집사도 함께 예

배드리며 생도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여전도회 연합찬양대는 '빛의 사자들이여'를 찬양했고, 2부 파송식에서는 82기 기독생도 임원들이 '우린 주를 만나고'로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사명의 길을 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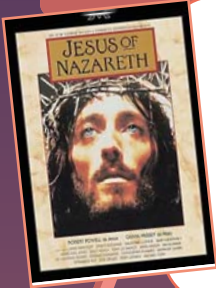
영락교회가 정성껏 마련한 축하 만찬이 육사생도 식당에서 베풀어졌는데,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따뜻한 교제와 기쁨을 나누었다. 특히 졸업생 선물은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에서 사랑과 기도로 준비하여 임관을 앞둔 생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이제 96명의 기독생도는 장교로 임관하여 믿음의 리더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간다. 제복을 입은 군인의 삶에서도, 또 그 너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용사로 서기를 기도한다. 그들의 걸음이 대한민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영락시어터 4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나사렛 예수 (Jesus of Nazareth, 1977) 15 1시간 42분

5일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 출연: 로버트 파웰, 앤 밴크로프트, 올리비아 핫세, 안소니 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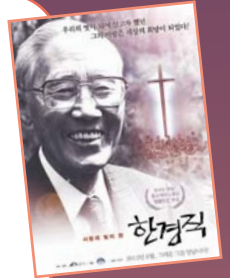
예수의 출현과 사역에서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하신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과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다. 결국 예수님은 본디 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다.

사랑의 빛이 된 한경직 (다큐멘터리, 2012) ALL 1시간 24분

12일

감독: 천정훈 내레이션: 정애리

그가 빛진 자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믿음이 척박한 땅 대한민국,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질곡 같은 역사 속에서 나라 잃은 겨레의 아픔을 눈물로 기도한 한 남자가 있다. 종교를 뛰어넘어 사회의 가장 큰 어른이자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가 되었고, 대변인의 삶을 살아간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 고(故) 한경직 목사의 98년간의 기적 같은 여정, 그 길을 따라간다.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 in The Rain, 1952) ALL 1시간 43분

19일

감독: 진 켈리, 스탠리 도넨 출연: 진 켈리, 도널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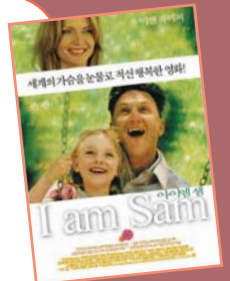
아마추어 쇼 코미디언인 돈 록우드와 코스모는 공연을 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새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할리우드로 온다. 돈 록우드는 할리우드에서 우연히 모뉴멘털 영화사의 스탠트맨 역할을 따내게 되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여배우 리나 레이먼트와 함께 다수의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단연 스타로 급부상하게 된다.

아이엠 샘 (I Am Sam, 2001) 12 2시간 12분

26일

감독: 제시 넬슨 출연: 손 팬, 다코타 패닝, 미셸 파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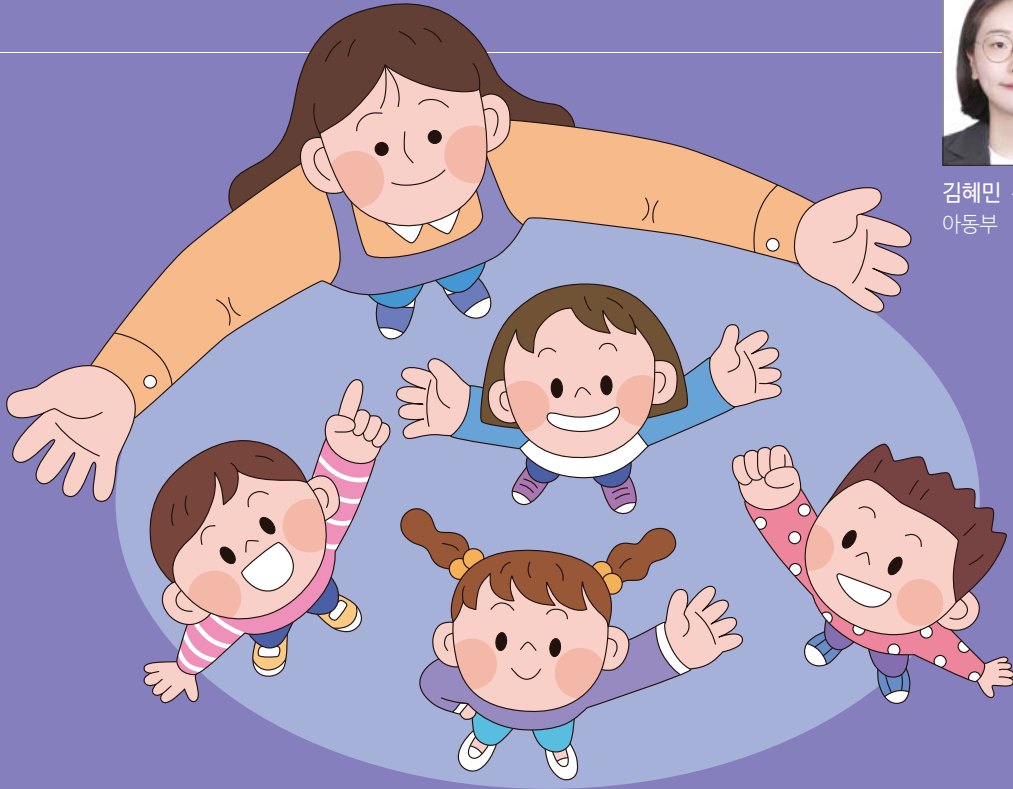
7살 지능을 가진 샘은 갈 곳 없는 레베카를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딸 루시를 낳지만, 레베카는 샘과 루시를 두고 사라진다. 샘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루시를 밝고 건강한 아이로 키운다. 하지만 루시가 7살이 되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샘이 아버로서 양육 능력이 없다고 선고한다. 이에 사랑하는 딸을 빼앗긴 샘은 유능한 변호사 리타 해리스를 찾아간다.



결국은 여호와 이레



김혜민 전도사
아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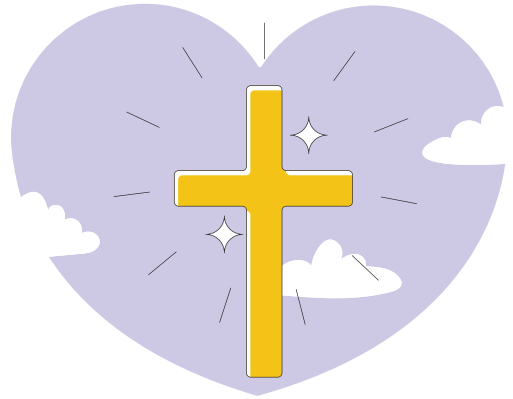


용기 없던 소심한 어린이

매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기 넘치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종종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의 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용기 없던 소심한 어린이’였습니다. 늘 친구들 뒤에 숨기 바빴고,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몇몇 친구가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급식판을 제게 내밀며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들어주었지만, 그 일은 어느덧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식사 후 당연하듯 제게 식판을 넘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라는 짧은 한마디를 내뱉을 용기가 없어 그 짐을 묵묵히 떠맡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모님은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권도를 권하셨습니다. 도복을 입고 땀 흘리며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예의와 함께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위축되었던 마음에는 자신감과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돌아보니,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향한 세밀한 일하심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며

태권도를 통해 얻은 용기는 저를 새로운 자리들로 이끌었습니다. 중학교 반장부터 고등학교 전교회장, 교회 고등부 회장까지 여러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리더였을지 몰라도, 신앙만큼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6대째 이어온 신앙의 가문 안에서 습관처럼 고백하던 하나님이었을 뿐,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시다.

전환점은 2014년에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 입시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재도전을 준비하며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우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체육 교사가 아닌 '신학'이라는 전혀 다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잊지 못할 소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 땅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 그리고 선교신학 전공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의 현장인 영락교회 아동부에서 전임 사역자로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 자녀의 부족함이나 남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자주 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용기 없던 소심한 아이를 다듬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우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이들의 성격과 재능, 심지어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든든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린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삶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활짝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기도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자라기를 축복하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기도회'가 2월 6일, 13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본당에서 열렸다. 영락의 많은 가정이 다음세대의 영적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3주간의 기도회에 참석해 손을 모았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성령 충만 메시지

첫째 주 저녁에는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와 아동부까지 영락의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교는 '분홍 목사'로 잘 알려진 홍용희 부산성민교회 목사가 '성령님 오세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내 삶에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인생이 달라진다."라며, 눈물의 기도와 회개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왜 아이를 키우는가 등을 생각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자리로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

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목사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성경 퀴즈를 내고, 맞히는 어린이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나눠주며 호응을 얻었다. 앞다퉈 손을 들고 퀴즈를 맞춰 목걸이를 받은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설교가 끝난 후, 가정을 위한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부모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과 축복을 담아 우리 자녀가 걷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했다. 이어 부서 담당 목사들이 다음세대의 성장과 번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어린이들이 미리 작성해 온 '기도카드'를 보고 각자의 기도 목록에도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축복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밤이 깊어 사방이 어두웠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나서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최한나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홍보출판부 신입기자

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왜 아이를 키우는가 등을 생각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자리로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



2/6

첫째 주 홍용희 목사(부산성민교회)



2/13

둘째 주 김성중 교수(장신대)



2/20

셋째 주 김경우 목사(양평동교회)



청소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찾기

둘째 주 저녁에는 중등부와 고등부, 사랑부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다.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김성중 장신대 교수가 전했다. 김 교수는 "행복하기 위해, 좋은 대학 가서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등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만의 비전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우 관계나 학업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을 것을 영락의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청년세대,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삶

셋째 주 저녁에는 대학부와 청년회, 자유인 등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김경우 양평동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은

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은 세상이 심판받고 홍수에 쓸려갈 때도 그 심판의 홍수가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을 삼키지 못했다."라며 "죄를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이 밤에도 은혜만이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삶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자리에 모인 영락의 청년들에게 죄악된 세상을 이기기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했다.

둘째와 셋째 주에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를 숙이며 부모와 목사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가 함께 머리를 숙였다. 소년부와 유치부에 속한 자녀들을 데리고 이번 기도회에 참석한 정수진 집사(은평교구)는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온 가족이 기도한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만남**

두려움 너머, 맡기신 자리로



신성희 신임 권사
성동·광진교구



신임 권사 교육...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권사 직분 권유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권사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과정을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빚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게 됩니다.

신임 권사 수련회에 참석하는 제 마음에는 기대와 함께 조심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스스로 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있는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서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신임 권사의 직분을 받은 이 시간, 생전에 영락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살아오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동산에 올라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오신 기도와 섬김의 길을 저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새겨 보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기도가 남습니다.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큰일을 이루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만남 속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조용히 곁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기도로 함께하는 권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2월 26일 영락수련원에서 신임 권사, 목회자, 권사회 임원이 모여 신임 권사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함께기도회, 하나님과 다시 마주하는 자리



강희주 집사
고양·파주교구
제4여전도회 회장



숨 고를 틈 없는 신앙의 자리

요즘 30, 40대의 하루는 바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쁜 게 아니라, 시간이 숨 고를 틈 없이 겹겹이 쌓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출근길엔 오늘 처리할 일들이 머리를 채우고, 퇴근 후엔 아이 저녁과 숙제, 집안 빈틈을 메우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겨우 넘기고 나면 내 마음을 돌볼 여유는 늘 뒤로 밀려 납니다. 믿음도 비슷합니다.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기도는 쉽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예배 자리는 지키지만 삶 안에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합니다. 뉴스는 매일 자극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흔들고, 비교와 불안을 키우며 내 삶이 뒤쳐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쳐가는 날엔 신앙이 삶을 세우는 힘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발걸음이 하나님에게 향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지쳐서 붙잡을 곳이 간절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감각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잔잔함이라는 이름의 무감각

저는 그런 갈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이셨고, 기독교 학교에 다녔고, 공부도 일도 크게 흔들림 없이 해왔습니다. 가정도 화목했고, 삶이 거칠게 꺾이는 지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 맞나?’ 신앙에 큰 의심도 없었고, 기복도 없었고, 갈증도 딱히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무엇을 도모하는 성향도 아니



라서, 조용히 공부하고 조용히 일하며 잔잔하게 흘러왔습니다. 문제는 그 잔잔함이 평안이 아니라 무감각일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함께기도회’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기에 오히려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였고,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감사가 무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모두 은혜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과 다시 맞추는 호흡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루하루 동행하시며 천천히 이끄신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호흡이라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호흡이 끊기면 마음이 마르고, 이어지면 삶이 깊어집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흐름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눔 가운데 삶이 깊어지고, 죄에 대한 예민함이 커졌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내 마음을 흔들고, 누군가의 기도가 굳은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내가 미처 언어로 붙잡지 못한 갈망이 기도로 바뀌어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었습


니다. 잔잔했던 신앙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함께 오면 됩니다

함께기도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할 힘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마른 사람, 신앙이 형식처럼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난해서 갈증을 잊고 지내던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장소는 소박합니다. 어떤 날은 영아부실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가장 분명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지금, 겨우 발걸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걸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함께기도회는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과 다시 단둘이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지친 마음이 숨을 쉬고, 무뎠던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자리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 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각자를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남**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기념관 201호

더보기 ▶




표 어 :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로마서 1:16~17)

2026년 산상기도회 안내



주제 : 뿌리 깊은 신앙, 충만한 인생!

기간 : 2026년 4월 15일(수) ~ 17일(금)

장소 : 본당

강사 : 이전호 목사(충신교회 위임목사)



일정

구분	4.15(수)	4.16(목)	4.17(금)
06:00~07:00	-	새벽예배	새벽예배
10:30~12:00	-	오전예배	오전예배
14:00~16:00	-	성경통독	성경통독
19:00~21:00	저녁예배(개회)	저녁예배	저녁예배(폐회)

설교자(강사) * 총 5회 설교

날짜	구분	주제	본문	제목
4.15(수)	저녁예배	은혜	에베소서 1:3~7	오직 은혜로
4.16(목)	오전예배	동행	마가복음 2:1~13	주님과 동행하며
	저녁예배	능력	고린도후서 12:7~10	주님의 능력으로
4.17(금)	오전예배	유산	신명기 6:4~9	내가 물려줄 유산
	저녁예배	사랑	요한복음 15:1~12	내 삶의 이유

* 강사 이전호 목사님께서 총 5번(오전 2번, 저녁 3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 새벽예배(2번)는 본교회 부목사가 설교합니다.



잘 돌보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구로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특별공연에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은 간증을 통해 불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복화술 공연인 강여사 연기를 통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저녁 식사 후, 첫날 마지막 순서인 결단의 예배에서는 담임목사의 “뜻밖의 사람들”(누가복음 23:26~28)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후, 취침의 시간에 들어갔다. 둘째 날 오전 파송의 시간은 구역장, 구역권사, 권찰 한 분 한 분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줌으로써 주님의 보내심을 되새기고,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기를 기도로 결단하며 1박 2일의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취재 양동욱 전도사 _ 목양부

01

제1회 구역장 수련회 ‘일어나 함께 가자’의 주제로 열려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목양부(부장 심재수 장로)에서 마련한 구역장 수련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 SHALL WE DANCE”(아가 2:10)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0일~21일 소망수양관(곤지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구역장 550명과 구역권사, 권찰과 38명의 교역자, 36명의 장로, 3040세대 40명(자녀 포함), 목양부 임원 17명 총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됨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수련회는 20일 아침 9시 소망수양관에 도착해 찬양으로 수련회의 문을 열어 부르심의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오전 특강 순서로 한성열 교수의 ‘행복한 대화, 행복한 구

역’ 강의를 통해 건강한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구역 사역에 필요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오찬 후 가진 교구 비전 워크숍에서는 각 교구별 장소에서 교역자와 함께 교구 상황을 함께 돌아보며, 내가 꿈꾸고 바라는 교구의 상은 무엇일까? 등 구역식구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삼일절기념예배

지난 2월 25일(수) 수요1부기도회 시간에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삼일절기념예배를 드렸다. 이은혜 권사(제1여전도회 회장)의 인도, 현승하 권사(제2여전도회 회장)의 기도, 강희주 집사(제4여전도회 회장)의 성경봉독,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이지철 목사가 ‘하나님의 입맞춤’(요한복음 3: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02



“자격 없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조의 은혜를 입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유경 권사(제3여전도회 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 김충손 은퇴

장로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나라 사랑의 뜨거운 함성이 본당에 울려 퍼진 가운데 기립하여 애국가 제창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취재 유승아 신임기자



03

여전도회전국연합회 3·1운동 제107주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열어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난숙 장로)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3·1절 제107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는 이난숙 회장의 인도로 송정경 부회장의 기도, 김성숙 권사의 성경봉독, 여전도회연합찬

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운성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복음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 나듯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여전도회원이 되기를 권면했다.

2부 특별기도회는 박금숙 권사 외부

회장 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난숙 장로의 만세삼창에 이어 애국가를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외의 어려운 정세 속에서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3·1운동 당시 교회 여성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제1,2,3,4여전도회가 공동 주최한 2026 여전도회연합수련회 3월 24일(화) 본당에서 열렸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여전도회'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9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번의 준비 기도회를 가지며 기도로 준비해 온 수련회는 이은혜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현승하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강희주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강사로 모신 김운성 담임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로 세워지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므로 좋은 나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며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이어



제1,2,3,4여전도회 2026년 연합수련회 개최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나무로 세워지자

04

김진우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 후, 지난해 각 여전도회 활동 사역 보고 영상을 시청했다. 여전도회 사역을 위해 쓰일 봉헌의 시간은 봉헌송과 박유경 권사(제3여전도회장)의 봉헌기도 후, 여전도회가를 부른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 제1,2식당에서 각 교구별로 오찬을 나누며 친교했다.

여전도회 가입 및 사역

제1 여전도회(만63세 이상)

- 미자립 농어촌교회 사역

제2 여전도회(만53세~62세)

- 군선교 사역

제3 여전도회(만43세~52세)

- 해외선교 사역

제4 여전도회(만42세 이하)

- MK(선교사 자녀) 사역

2026 연합권찰공부 개강예배 드려

05

지난 3월 6일(금) 본당에서 연합으로 권찰공부 개강예배를 드렸다. 각 교구 목회자와 구역장, 구역 권사, 권찰이 참석한 가운데 탁현수 목사의 인도와 심재수 장로의 기도, 여전도회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운성 담임목사가 '알

지 못함의 은혜'(마가복음 4:26~27)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며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목양부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구역 모임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로 정하고, 각 교구에서 구역원 심방과 교역자와 함께하는 구역 모임을 독려했다.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제45회 정기총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06

지난 2월 25일(수) 수요일부예배 후 선교관에서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제45회 정기총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했다. 경건회는 김운성 담임목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박신화 장로의 기도, 장학생 일동의 특송, 김운성 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김운성 이사장의 사회로 회무 처리를 진행했다. 사무총장 차영균 장로가 전 회의록을 보고했으며,

2025 사업 보고, 2026 사업계획 보고, 강명구 안수집사의 감사 보고, 최현우 안수집사의 회계 보고, 새로운 안건 토의 후, 한진유 장로의 기도로 마쳤다.

국내외 장학생 총 17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를 수여했으며, 장학생 대표 장신대 신대원 3학년 이은빛 학생(간중 10쪽)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해외 장학생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이재민, 독일

본대학교(University of Bonn) 정한나 학생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이 외에 장신대, 자유인, 송실대, 음악 장학생이 지원받았다.

같은 날 영락여성장학회(회장 김안순 은퇴권사)는 오찬 후 은퇴장로실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과 후원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안순 은퇴권사가 사업 보고를 진행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여성장학회는 여성 신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목회자 여성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홍보출판부 영락포토 신입회원 모집



사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리는 소명을 감당합니다!

- 대 상** : 사명감 있는 남녀노소 아마추어 사진가(초보자 환영)
- 모 임** : 매월 2회 야외촬영 or 교육(화 16~18시 봉사관 404호)
- 특기사항** : 『만남』 『교회 달력』 등 교회 사진봉사 기회

신청 및 문의(문자): 영락포토 회장 ☎ 010-5540-1251



바로잡습니다

지난 「만남 3월호」 59쪽 '김병훈 원로장로 별세'에서 '~ 1961년 제6회 장로 장립을 하여 친교부장, 상례부장 등으로 봉사하고 1986년 미국으로 이민 후 1988년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로 정정합니다.

작년까지 중·고등부를 섬기시던 이영호, 이종실 목사가 개척한 제이플로우 처치의 개척감사예배가 2월 28일(토) 성수동 소재 예배 공간에서 열렸다.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목사와 많은 교역자, 그리고 영락중등부 찬양대원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교회 개척을 축하하며 마음을 모았다.

박흥준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여 영락중등부 여호수아찬양대원들의 '꽃들도 주의 축복 내리소서' 찬양이 있었으며, '잃어버린 자에게로'(마태복음 10:1~6) 제목으로 설교한 김운성 목사는 "최근 교회와 교인 수가 감소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제이플로우처치가 구원



07

제이플로우(J.Flow)처치 개척감사예배

과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널리 흘려보냄으로써 많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천우 장로의 봉헌기도와 오동희 장로의 축사, 김운성 목사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이영호, 이종실 목사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큰 감사를 전하며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했다.

취재 김정훈 안수집사_홍보출판부 차장
사진 곽상진 집사_고등부 방송팀장

애독자 참여코너



4월호 『만남』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만남』 제작을 위해 성도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래 내용을 적어 제출(QR코드 또는 이메일 youngnak-hb@daum.net) 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다음 호에 당첨자 발표 예정 / 당첨 응모나 기사 추천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1.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2. 소속(교구/봉사부서/교육부/기타): _____
3. 이번 달 『만남』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기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이유나 소감도 간단히 적어주세요.

4. 평소 알고 싶거나 『만남』에 추가로 소개되길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5. 주변에서 『만남』 기사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교우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채택 시 추후 취재를 통해 기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심

Appearance on Lake
Tiberias
1308~1311

두치오 디 부오닌세나
Duccio di Buoninsegna
1255~1319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요한복음 21:14)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이 배 위에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 그리고 아침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강독에서 계신 예수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든 베드로,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 배경에 호수와 배,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비잔틴 양식의 평면적이면서도 한 장면에 시간의 흐름이 담긴 서사적인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치오 특유의 금박 배경과 섬세한 색채, 인물의 우아한 자세가 돋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제자들의 여정, 그리고 순종했을 때 넘치는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4월호 통권 624호

발행 2026. 4.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현경 승윤영 이나영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표지설명



흰 꽃이 피어난 가지와 보금자리의 작은 알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약속처럼 다가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메마른 우리 삶에도 새 생명을 틔우시고, 잠들었던 소망을 깨우셔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2026년 2월

※ 교회 홈페이지 게재 기준

새아기

- 1 차조이(차승화, 강성아 가정)
- 2 허시우(허성완, 민경희 가정)
- 3 조이안(조영재, 한지수 가정)
- 4 주하윤(주영민, 이은교 가정)
- 5 손서울(손재호, 김유진 가정)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심 Appearance on Lake Tiberias

두치오 디 부오닌세냐(Duccio di Buoninsegna)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6)